



좌측부터

김상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손 욱(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장)



KISTEP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온 위대한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폐허나 다름없던 국토를 재건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는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등으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직면했다. 세계의 경제 상황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경제의 체력을 굳건히 할 '신(新)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미래성장동력'의 생태계 조성은 국가혁신시스템이 관건으로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지대하다. 정부 R&D 예산 20조 원 시대, 이러한 변화 시기의 선두에서 손욱 KISTEP 이사장과 김상선 KISTEP 원장이 대담을 통해 국가혁신체계 고도화, R&D혁신전략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KISTEP 제9대 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고 마련한 'KISTEP InI' 첫 대담에 이사장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경제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시기에 KISTEP 이사장직을 역임하시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KISTEP의 9대 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9'는 원래 한 주기를 완성하고, 새로운 주기를 준비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ISTEP 원장으로서 9대까지의 프레임을 깊이 분석하여 세종시대의 창조국가처럼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 백 년, 새 천 년의 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KISTEP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는 개발보다 탐사, 평가보다는 기획이 앞서야 합니다. 나아가 기획보다 문화를 만드는 싱크탱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사고가 필요합니다. 과학 기술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 기술계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진천으로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중인 KISTEP의 진천 청사에 가보니, 학익진의 형세를 보이더군요. 거북선 함대가 학익진 전법으로 한산대첩에서 승리했듯 한국의 거북선 함대 KISTEP이 제4차 산업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은 장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들이 존중받는 나라야말로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국가발전 및 가치 창출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과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선비정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약하면 선진국의 3대 요소는 과학기술, 시장경제, 시민정신입니다. 시민들은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자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과학기술자들이 환골탈태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만 가슴 뛰는 초일류목표를 세우고 마음껏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What에만 몰입하여 플랫폼 사고 및 Why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연구하는가?(Why)를 상기하고, 과학적 방법론(How)에서 앞서가야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KISTEP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가능한 제도 및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주요 분야별 싱크 탱크가 절박한 실정입니다. KISTEP이 대표적인 국가 싱크 탱크로 도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KISTEP은 내년 말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출퇴근, 주거여건, 자녀교육 및 문화여건 등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이후 불과 50여 년 만에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의 우수한 DNA와 함께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KISTEP은 그저 여러 공공기관 중의 하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도 KISTEP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이스라엘과 같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사람 중심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을 연계하다 보면 단기적, 미시적으로 되어 참 인재는 국가를 떠납니다. 세계 인재 지수 2위인 싱가포르에 왜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지 들여



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유치원부터 창의인재육성문화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틀을 바꿔야 합니다. 연구원 중심에서 대학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서 신수종 창출로, 불신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및 심사에서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 즉 융합 시너지 창출로 틀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구중심 대학, 프리존(Free Zone), 고객 중심, 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구기관 중심 R&D라는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80년대를 지나면서 대학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공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 출신 나노 전문가가 학과장을 맡고 있기에, 버클리대에 있다가 왜 이곳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다'라고 말하더군요. 덴마크가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는 '여기는 나노를 정말 좋아해서,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만 모여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가 대학 중심 연구를 위해 프리존을 지정하고 연구시설, 기업,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켰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예산이 있지만, 연구원 중심이 강합니다.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출연연구소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버넌스의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거버넌스 변경에 따라 일부 얻는 점도 있었지만,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신명 나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소 이슈를 비롯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부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할 때는 주로 밖에서 연구현장을 바라보았다면 이후 10여 년 동안은 연구현장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균형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미미한 부분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20년, 30년, 더 나아가 100년을 바라보면서 큰 방향에서 반드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일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핀란드가 어떻게 창의적 교육에 성공했나고 물론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21년간 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독일 통일 시에도 통일정책 담당자가 20년간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골격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또한 과학기술 전문가를 20년쯤 모실 수 있으면 초일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중국, 일본 등과의 차별성은 창의적 기술과 인재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술을 가지고 미래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기 의식을 갖고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아야 하며, 신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안 총 규모는 470.5조 원이며 이중 과학기술예산은 20.4조 원으로 금년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10조 원 규모였던 과학기술예산이 11년 만에 20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복지예산 수요증가 등 결코 녹록지 않은 나라 살림 가운데 과학기술예산이 20조 원을 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로서는 국가 과학기술예산 20조 시대를 맞이한 것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말은 선도기술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전해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심사와 평가를 하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30년 전에 평가 시스템이 사라졌으며 대신 디자인 리뷰를 합니다. 최초 개발자가 단계별 계획을 세워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채, 과제를 시작하려면 이를 돕는 팀이 필요한데 이때, 전문가들이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끔 도움을 주는 것이 디자인 리뷰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해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성과를 창출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리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연구문화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막상 연구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우리 기관(부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내외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가용한 최적의 자원을 동원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든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hat, How, Why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현재, 한국은 What만 합니다. What만 가지고 경쟁을 하면 비전, 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세계 최고를 뛰어넘기 위해 도전하려는 문화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 봄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AR/VR,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이 더 이상 과학기술계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국가 안보, 외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중심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에도 과학기술이 위치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중심사회의 물결에 낙오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완전한 수평적 문화를 갖고 있으며, 생태계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의 샤오미라는 회사의 별명은 '실리콘밸리보다 더 실리콘밸리 같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이미 체화한 것이죠. 어느 날 보니, 인도에서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려나고, 샤오미가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분이 샤오미 회장에게 '어떻게 창의적으로 일합니까?'라고 묻자, '인터넷 사고를 한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고는 '개방, 공유, 협력, 존중' 즉,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생각 없이, What을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한 걸음 느린 것이라고 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IoT, AI 등과 같은 개별 기술 분야를 넘어서 수평적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획일적 접근이 아닌 창조적·창발적·개방적인 사고의 전환, How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방법론 추구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서울대학교 창조센터에 가서 모든 과제가 하이테크 릴레이티드 되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팀 내에서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국내 실



정과 달리, 앞서가는 서구의 시스템은 시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이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모으는 겁니다. 현시대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절대 세계 시장을 이길 수도,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전 세계에 있고, 우리는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세계와 협력해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중심사고를 바꿔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정부 R&D의 주된 목표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어쩌면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연구개발예산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는 4만 개를 돌파하였으며 대학 역시 교육을 걱정할 정도로 연구개발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수

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조 원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삶의 질이나 사회문제 해결연구의 경우 목표가 비교적 뚜렷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추진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리빙랩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진 의미는 창의적인 비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R&D 중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소들은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역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럽 등에는 연구중심대학 즉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대학이 있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기술 과제를 해결하는 대학 구조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R&D에 대한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여전히 화두입니다. 작게는 PBS와 같은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국가혁신체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문제 제기와 해답들 모두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 방안' 역시 그러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NIS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것입니다. NIS의 모델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90년대 R&D 성과창출을 위해 R&D 체계를 바꿨습니다. 프리존 개념도 이때 나온 것이죠. 이후 노벨상을 배출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NIS를 표방하여 도입하였지만, 결만 가져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NIS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입니다. 크리티컬 매스를 위해서는 한국 인재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을 모아 NIS 체제의 출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치와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 몰아주면 크리티컬 매스가 되는데 지역별로 다 쪼개놓았기 때문에 연

구소만 많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전에 인재유치를 위해 코넬대학에 간 적이 있습니다. 코넬대 관계자가 한국은 참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세트인 장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1번 장비에 대해서만 묻고, 구입해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번 장비를 사가고, 3번 장비를 사가는 식이죠. 추진 주체를 한 군데로 몰아주면 세트로 구입해서 해야 할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틀을 깨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에서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KISTEP은 사람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R&R(Role & Responsibility)을 정립하였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정책기획 Think Tank의 역할을 강화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KISTEP이 국가 R&D의 영역을 넘어서, 인력, 지역, 정보, 인프라 등 NIS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KISTEP R&R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KISTEP은 KD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나, 세계적인 흐름을 읽는 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전략 및 정책을 펼치고, 일기예보처럼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말려도 됩니다. 단, 몰라서 못 뛰는 겁니다. 온 국민이나 모든 기업들에게 제대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이 전 세계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모든 것을 끌고 갈 때가 아닙니다. 개발 공동체보다는 전략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0, 80년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산업을 끌고 가던 때와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어찌보면 기업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기술 예측 등의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국책연구소의 경우도 과거, 직접적인 R&D가 주요 기능이었던 것이라면, 이를 줄이더라도 정책 서비스 기능, 즉 민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인 역할을 해줄 싱크탱크가 절실한 거지요.

그런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가 전체예산의 10%를 할애하겠다는 정도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중소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혼자된 기능을 정책적으로 통합하여 조직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인재들을 연결하면 체계적인 공동체가 구성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멸하는 중소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ISTEP은 올해로 개원 19년, 내년이면 진천 시대의 개막과 함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천 시대를 맞이하는 20살 청년 KISTEP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KISTEP의 흥망은 내부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 KISTEP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열정, 책임감, 긍지 등은 상당하기에 전문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화를 지향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전략가를 채용하고, 직원들의 해외 파견 및 교육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KISTEP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키다리 이사장님'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KISTEP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위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욱 이사장은 서울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197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삼성전자 10년 비전'을 만들어 혁신을 주도했다. 손 이사장은 최장수 삼성종합기술원장, 삼성인력개발원장을 거쳐 농심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임교수, 사)행복나눔 125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